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134-3번지 Happy 마음터 3층
TEL. 031-228-3279 FAX. 031-258-3279 www.csp.or.kr



수원시자살예방센터는 수원시장안구보건소에서 지역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NO.20
꽃보다 2009
아름다워



당신을
꼭
안아드릴게요.



Contents



- 04 theme** 노인자살생존자의 자살경험에 관한 연구
- 10 생명의 나무** 가정폭력과 지워지지 않는 흔적
- 12 아름다운 사람** 혼자 꾸면 꿈이 되지만 여럿이 함께 꾸면 현실이 됩니다.
- 14 csp network** 언제나 청춘을 꿈꾸며
- 16 csp cafe** 무심결에 들으면 약간 무서운 느낌이 드는 '수원시자살예방센터'
- 17 csp junior** 행복을 나누는 유랑단 '아름다운사람 지킴이랑'
- 18 csp zone** 당신과 함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를 건너다2
- 20 review**
 - in the movie -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독립영화 관람권을 보장하라 영화 '날아라 뽕깬'
 - in the Photo - 영원한 삶이 없는데, 영원한 죽음이 있을까?
- 24 csp 상담실** 2009년 6월~10월 통계 상담사례 분석
- 25 happy suwon**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등록관리
- 26 csp news**

편집자의 글

겨울이 돌아왔다.
추위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몸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마음을 가까이 하자.

매년 이맘때쯤엔 나눔의 훈훈한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부녀회에서 만든 김장김치를 필요한 이웃에게 전하고,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조금씩 모아놓은 돈을 기부하는 등의 이야기.
올해는 센터의 아름다운사람지킴이 10기도 요양시설에 찾아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즐겁게 헤드릴 공연을 준비했다.
마음을 가까이 함으로써 생긴 파스함에는
따뜻한 손이 찬 손을 잡았을 때 전하는 온기 이상의 감동이 있다.



표지설명

시책사업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찾아가는 문화공연
마인드 브릿지(mind bridge)를 홍보하는 메시지공이다.
차가운 시련 속에 있다해도 딱딱에 새겨져 있는 굴귀처럼
'희망을 꿈꾸며' 봄날을 기다리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2009 가을겨울호 통권 20호 발행일 2009년 12월
16일 발행인 이영문 발행처 수원시자살예방센터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134-3 Happy 마음터 3층 / www.csp.or.kr
/TEL.(031)228-3279 기획·편집 미우·서청희 디자인·인쇄 셀러드
밝은아침 명조 /TEL.(031)257-8173

노인자살생존자의

자살경험에 관한 연구¹⁾

- 모과 옹두리²⁾에서의 비상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6년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사회복지학과 박지영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살아가는 이유를 부여해주는
관념, 또는 환상을 위해 역설적으로 스스로 죽어간다.
살아가는 이유라고 불리는 것은 동시에 죽어 가는 이유이기도 하니까..
인간과 그의 삶, 배우와 그의 무대 사이의 단절.. 이것이 바로 부조리의 감정..
자살(suicide, 自殺)이다. (Albert Camus, 1955)

1) 이 논문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6년도 사회복지학과 박지영의 박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수원시자살예방센터 소식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theme에 쓰이기 위해 서정희가 편집하였다.

2) '옹두리'란 나무의 가지가 병이 들거나 벌레가 파서 곁이 맺히어 불통하여진 혹은 의미한다.(이희승, 2006)

I. 서론

국민 평균수명 80세를 바라보는 고령화시대에 우리 사회가 직면한 노인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노인 자살의 급증이다. 수명연장의 기적을 넘어 생명을 창조해내는 의과학의 발전도, 효(孝)사상을 대체하는 사회안전망도 자연의 이치를 거부하는 노인들의 역전된 죽음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인간이 해결해야 할 오직 단 하나의 철학 문제가 '자살(suicide)'이라고(Camus, 1955) 했던가? 그러나 노인 자살은 이제 더 이상 철학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구체적인 사회 문제로 현현(顯現)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살예방의 제도적 노력들은 노인이라는 대상에 있어서 한계와 제한점을 드러내고 있다. 노인 연령층은 다른 연령대와 달리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살에 대한 암시를 하는 경우가 매우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자살을 통해 '지향(intentionality)' 하는 '그 무엇'이 다른 연령층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노인 자살에 대한 노인 자살생존자의 경험에 집중하여 이들의 경험 속에 내재된 본질적 주제와 의미구조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노인자살에 대처할 수 있는, '환경속의 인간(person in environment)'이라는 사회복지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사회복지 실천 이해를 갖고자 한다.

전투는 끝났다.

이제 스스로 물러날 뿐이다
긴 그 어리석은 싸움에서
서서히, 서서히, 돌아서는
이 허허로움

아, 얼마나 세상사 인간관계처럼
부끄러운 나날이었던가
실로 살려고 기를 쓰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애절한 일이 또 있으랴

가을이 접어들며 흰히 열리는
외길, 이 혼자
이제 전투는 끝났다
돌아갈 뿐이다.

(가을, 조병화)

II.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 참여자는 서울, 경기, 충청권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참여자의 요건, 연구방법 및 과정 등에 대한 안내서를 발송하고 이를 통해 의뢰받은 사례 21건 중에 적합한 17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여러 사정으로 중도 탈락한 13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명이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로 포함되었다.

본 논문의 자료 수집은 2005년 1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연구 참여자들과 최소 2회부터 최대 5회까지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연구 참여자들과 상호간에 신뢰하고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질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이들이 가장 편하게 느끼는 장소, 시간을 약속하고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며 연구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정서 교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해석학적 현상학적 분석과정을 통해 체계화하고 정리하여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녹음된 면담내용 필사



필사내용과 녹음내용 비교검토



연구참여자에게 최종필사내용의 정확성 확인



노인자살 경험을 나타내는 부분들을 내용별로 텍스트 분리작업



분리된 텍스트를 참여자의 느낌, 생각에 맞추어 주제 진술 분리



분리된 주제 진술을 일반 용어로 정리



정리된 일반용어, 연구자의 경험, 어원, 예술작품에서 추출한 주제들과 비교 검토하여 본질적 주제 결정

III. 연구결과

1. 노인자살의 본질적 주제

본질적 주제	규명된 주제들
공든 탑이 무너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희망이 무너짐 2. 망가져 무너지는 몸뚱이
끝없이 돌아가는 고통의 굴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혼자서 감당해야하는 생활의 고통 2. 고통의 대물림함
헛걸음 진 세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박복한 팔자 2. 외대박이 삶 3. 발버둥치며 살아온 인생, 남은 건 빈 동우리
세상에 나 하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희망을 위한 마지막 매달림 2. 혼자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과제
죄 값을 치르고 벗어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변을 정리함 2. 생(生)의 계단을 하나씩 내려옴 3. 삶의 반대편에서 벗어남을 지향함 4. 남은 자에 대한 배려
희망을 배워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었음 2.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 3. 살아가는 방법을 새로이 배워감/눈떠감
화 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속에 쌓아두었던 말을 쏟아냄 2. 멍에와 희망을 함께 짊어짐 3. 희망을 심음

연구자는 자료 수집과 분석과정에서 연구 주제의 민감성과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고려하여 연구자의 편견이 자료 수집과 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판단중지를 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와 가족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지속하였다.

연구 결과, 자살을 경험한 노인 생존자의 자살 경험은 연구자가 '자살 실패가 또 하나의 좌절의 경험이 될 것'이라는 선가정과는 달리 연구 참여자들은 삶의 바닥을 치는 고통과 자살 경험을 통해 자신과 삶,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여생(餘生)의 희망을 배워나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노인 자살의 본질적 주제와 그에 따른 주제를 서사적 맥락에 따라 나누어 규명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자살 전, <고통을 직면>하는 과정의 자살 경험의 본질적 주제는 '공든 탑이 무너짐', '끝없이 돌아가는 고통의 굴레'였으며 이러한 고통을 통해 <사람을 반성>하는 과정의 본질적 주제는 '헛걸음 진 세월', '세상에 나 하나'로 규명하였다.

자살을 시도하는 단계는 연구 참여자들이 <죽음과 재휴>하는 과정으로써 자살을 통해 참여자들이 지향하는 바, 그리고 자살의 본질적 주제로 진술한 것은 '죄 값을 치르고 벗어남'이었다. 자살시도 후, 다시 생존하게 된 참여자들은 자신들을 새롭게 주목하고 관심을 쏟는 가족과 이웃, 사회복지 전문가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서히 자신의 <남은 시간을 재인식>하면서 자신이 아직은 자녀들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그리고 살아갈 만한 의미가 있음을 깨달으면서 삶의 '희망을 배워갔다.'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은 삶의 과제들과 고통들을 수용하면서 '화해'를 시작하였다.

“모과 응두리에서의 비상”³⁾

바닷가의 조개껍질처럼
비린내 나는 육신과는 헤어지고
세상과도에서는 밀려나
예순의 나이를 살고 있다

칠죄(七罪)의 연못을 휘저어온
모험과 착오의 연속
나의 심신의 발자취는
모과 응두리처럼 사연 투성이다

....

한 해의 삶을 다하고
떠나는 영혼처럼
영혼이 떠나간 형해처럼
하늘을 향해 지심을 향해
혼신의 힘으로
마지막 비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본 연구의 본질적 주제를 표현하는 「모과 응두리에서의 비상」에 인용한 시(詩)는 구상의 「모과 응두리에서의 사연이」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 정한모의 「마지막 비상」의 마지막 연에서 인용하여 연구의 내용에 맞게 연구자가 재정리하였음.

IV. 결론 및 제언

노인 자살생존자인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살경험은 자신이 지켜내야 할 것-자식, 부모로서의 신망, 가족과 동료들과의 신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죄 값을 치르고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병든 모과 옹두리에서 비상하기 위한 필사적인 선택이었다. 그러나 죽음에서 살아남은 현재 시점에서 다시 바라본 자살 경험에 대해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삶의 바닥을 치고 새로이 희망을 배워가는 인생의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제 이들은 고통은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고, 극복의 과정에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여러 손길들이 있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었다. 자신이 거쳐할 수 있는 곳이 어두컴컴한 집안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지역사회임을 배워가고 있었다. 자신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 과거에 잃어버린 것들이 아니라 아직도 자신과 함께 남겨져 있는 새싹 같은 자손들임을 하나씩 깨달아가고 있었다.

이제야 이렇게 노인 자살생존자들은 진정한 생존의 방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나와 너가 함께 함으로써, 고통과 희망이 함께 함으로써, 과거와 미래가 함께 함으로써 오늘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방어기제 - '공격자와의 동일시'

가정폭력과 지워지지 않는 흔적

글_이용석(용인정신병원 의국장)

가정폭력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인데, 배우자인 부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 피해의 대상이 됩니다. 즉 가정폭력 가해자의 70%는 아이들을 학대합니다. 그런데 이들 가해자의 과거를 조사해보면, 그들이 아이였을 때, 그들의 부모 사이에서 가정폭력이 있었던 것을 목격한 경우가 75%라고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아이였을 때, 자신들이 직접 학대를 경험한 경우가 50%라고 합니다. 마치 부모의 얼굴을 아이가 닮는 유전처럼, 가정폭력도 부모를 아이가 닮아, 그 아이가 성장하면, 자신이 직접 가정폭력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됩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한 남자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와이프를 밀치고 주먹질을 했는데, 문득 그런 내 모습이, 내가 어릴 적에 어머니를 때리던, 내가 너무 싫어하는 아버지와 똑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그토록 싫어하고 무서워했는데, 왜 그런 아버지를 닮을까요?



밧고 무서운 사람을 닮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립니다. 아이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대문을 여는 소리가 나면, 아이는 자기 방으로 숨어들어 갑니다. 그리고 뒤이어 벌어지는 아버지의 고향과 어머니의 비명소리에 아이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가 성장을 하면, 무서워하던 아버지를 꼭 닮아서, 아버지처럼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폭력을 휘두릅니다. 두려움에 휩싸였던 아이는 무서운 아버지를 동일시(同一視, identification)하여, 아버지를 닮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만나 프로이트(Anna Freud)는 '공격자와의 동일시(identification with the aggressor)' 라는 방어기제로 설명하였습니다. 강력하고 위협적인 상대에 의해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 약한 인간은 위협하는 강한 상대를 동일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신의 위험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위험한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위협적인 상대의 세계관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도 그런 상황을 통제하려고 시도합니다.

이와 같은 '공격자와의 동일시'는 도처에서 살펴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예로부터 시집살이를 혹독히 한 며느리가 나중에 시집살이를 매섭게 시키는 시어머니가 된다고 말합니다. 무서운 시어머니의 관점을 받아들여, 수동적으로 당하던 자신을 능동적으로 괴롭히는 시어머니로 만들어갑니다. '공격자와의 동일시'의 또 다른 예로는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1973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네 명의 무장 강도가 은행을 털기 위해 침입했습니다. 그들은 은행 직원들을 볼모로 6일간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질들이 범인들을 무서워했지만,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오히려 범인들에 동조를 하고 경찰을 적대시켰습니다. 이런 인질들의 심리를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질들은 강도를 두려워했지만,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강도의 관점을 수용함으로써, 강도에게는 동정을, 경찰에게는 분노를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인질들은 '공격자'인 강도를 동일시함으로써, 두려운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가정 폭력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맞는 것을 목격한 아이, 아버지에게 매를 맞는 아이는 점차 공격자인 아버지를 동일시함으로써, 두려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어떤 때는 즐거운 경험을 하지만, 때로는 불쾌한 경험을 할 때도 있고, 수치감을 느낄 때도 있으며,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불쾌함과 수치감과 분노를 잘 다루지 못합니다. 이런 좋지 못한 감정의 경험은 몽똥그려져 '분노'의 감정의 모습을 한 채 즉각적으로 밖의 대상(배우자와 자식)을 향해 표출됩니다. 자기 내부의 불쾌한 감정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분노의 모습을 빌려서 밖의 대상을 조정(control)하려고 합니다. 그가 화를 내면서 와이프와 자식을 때리는 순간, 그는 '과거 자신의 아버지'가 되고, 와이프와 자식은 '그의 어릴 적 매 맞는 어머니와 자신'이 됩니다. 와이프와 자식이 고통과 수치와 분노를 느끼게 함으로써, 자신이 어릴 적 아버지로부터 느꼈던 감정을 똑같이 와이프와 자식도 경험하게 만듭니다. 즉 자기 자신의 내부에 있는 고통과 수치와 분노를 처리할 수 없기에 자기 밖의 대상인 와이프와 자식을 통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분노'의 현상은 사실, '통제(control)'의 이슈를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의 순간은, 과거에 벌어졌던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 간의 비극(悲劇)이, 이제는 배우들이 바뀐 연극무대처럼, 현재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 간의 비극으로 재상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대의 비극은 한 아이의 마음 속에서 숨죽인 채로 남아서, 다음 세대의 비극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혼자 꾸면 꿈이 되지만 여럿이 함께 꾸면 현실이 됩니다.

우리동네 세탁소 이영준 점장과 나누는 이야기

글_백민정(csp교육담당/mj831@hanmail.net)

우리동네. 어디에서라도 가깝게 들을 수 있는 편안한 그곳. 바로 내 옆에 함께 하는 곳.

'우리동네'는 세탁소, 빨래방, 커피집, 슈퍼, 병원, 아카데미로 이루어진 사회적 기업의 이름이기도 하다.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영리를 추구하는 형태의 조직을 말한다. 빵을 팔기 위해 가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빵가게를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동네는 이 같은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를 가짐으로써 정신장애인을 고용, 지지하여 직업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한다. 그리고 묻는다.

“진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해요?”

그 사람들이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동네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각오한 부분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우리는 비장애인들에 비해 일을 배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배우고 나서부터는 뒤질 게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동네 세탁소의 이영준 점장. 건설회사의 간부로 일하다 세월의 파고에 휩쓸렸던 그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다. 지역 내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게 되면서 어렵게 삶의 재발을 다시금 꿈꾸게 되었고, 집에서 센터까지 자전거를 타고 하루 2시간씩 달리며 새로움으로 가득 찬 그의 하루를 그려내고 있다.

“일하겠다는 의욕만 가지고 모였죠. 될 일겠어요. 40년 평생 직업을 한 번도 안 가져본 사람도 있고, 일했다고는 하지만 한두 달 다니다 적응이 어려워 그만둔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지지해준다면, 그래서 일하기에 편안한 공간을 만들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힘들어도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우리동네 세탁소의 점장으로 일한 지 일년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그만둔 사람도 많았고 새로 들어온 사람도 많다. 증상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일터 내 대인관계, 업무수행에서 오는 스트레스, 손님들과의 관계형성, 서비스에서 오는 부담감 등 어려움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염두하고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지금까지만 해도 잘한 건데 포기하게 되는 마음들을 대할 때마다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내부에서 우리들끼리 문제가 발생하면 이곳은 일터니까 개인적인 감정은 조절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알려주며 같이 해결해보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일이라 그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고 손이 익숙해지듯 마음이 익숙해지면서 내 직장, 내 일터에 대한 소중함과 책임감이 느껴지고 있다고.

“사람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라도 정성껏 해서 좋은 이야기 듣고 싶고, 장사 잘되었으면 좋겠는데 스트레스나 혹은 증상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그 마음이 손님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점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잘 이해시키고,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네요. 하지만 많이 안정화되어가는 중입니다.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는 사회적기업의 형태인 우리동네를 소개하는 강연회 자리에도 많이 참석한다. 궁금해 하는 사람들의 시선에, 직접 우리동네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만큼 좋은 답변자도 없다. 많이 알리고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더 바라는 것은 세탁물이 많이 들어와 장사가 잘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서 하고 싶은 꿈이 하나 둘 늘어났다는 직원들을 볼 때마다 이영준 점장은 마음이 새롭다. 일감을 다루는 서툰 손마디이지만 그들의 눈은 삶의 에너지로 충만한 까닭이다.



언제나 청춘을 꿈꾸며

클_고은(csp교육담당/bewise02@naver.com)

노년기의 시작은 몇 세부터일까? 법률로 정한 제도적 규정을 보면 65세 이상의 사람을 노후가 시작된다고 본다. 하지만 '65세=노인'이라는 등식이 금세 꺾부로 와 닿지 않는다. 요즘엔 노년기의 나이이지만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외모에서도 젊음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노인정 회원가입 조건이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지만 막상 그 나이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한다. 노인정에서 막내로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시는 분이 60대 후반에 백발의 어르신인 것을 보면 이유를 알 것도 같다. 나이가 7학년쯤은 접어들어야 앉아 쉬신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아직은 한창인 나이, 제 2의 전성기를 꿈꾸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대답을 듣고자 대한노인회 수원시장안구지회 황민웅 사무국장을 찾아보았다.

아직 팔팔한데, 놀면 뭐해~!

사무국장님이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보다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들려주신다. '심신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리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경제적 안정이라고 한다. 아직은 한창인 나이에 퇴직하시고 변변찮게 찾아 주는 곳 없이 하릴없이 있다 보면 없던 병도 찾아온다는 것이다. 대한노인회 수원시장안구지회에서는 이렇게 취업을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가 있다고 한다. 이 서비스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위탁 운영으로 어르신들에게 보람 있는 노후생활과 경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취업지원센터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 상담

- 구직상담: 구직자의 취업조건, 희망 직종 파악
- 구인상담: 근로조건 및 업무파악

▶ 알선

- 구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알선
- 구직자가 구인처를 방문, 면접에 참석토록 홍보

▶ 사후관리

- 구직자: 구직자의 취업적응과 장기취업 유도
- 구인처: 지속적 구인의뢰 및 취업자 근로여건 개선유도

▶ 교육 및 간담회

- 교육: 취업에 필요한 인성·소양·직무교육 실시
- 간담회: 취업자간에 지지의 장을 마련하여 장기취업 지원

▶ 주요 알선 직종

- 어린이 안전 지킴이
- 숲 생태 체험 지도자
- 컴퓨터 정보화 지도자
- 자연보호 활동(봄·가을 정화사업)
- 기타 - 경비원, 주차관리원, 가사도우미, 주유원, 미화원, 판매원, 실버택배, 간병인 등

언제나 청춘~!

‘내 청춘 돌리도~’. 반은 우스갯말로 반은 진심을 담아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곤 한다. 황민웅 사무국장에게 청춘은 현재진행형이라는 말에 이유를 물으니, ‘삶을 즐길 줄 아는 여유를 가진 자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다’라는 환상적인 대답이 돌아왔다. 연말의 바쁜 일정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막막함과 지난날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로 쫓기듯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요즘. ‘삶을 즐길 줄 아는 여유를 가져라’라는 사무국장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돌아오는 발걸음엔 어느새 느릿느릿 여유가 묻어나왔다.

대한노인회 수원시 장안구지회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52번지
취업지원센터 TEL 031) 242 - 1377
FAX 031) 253 - 6929



무심결에 들으면 약간 무서운 느낌이 드는 '수원시자살예방센터'

글_유동혁(csp청소년자원봉사자 지도교사)

수원시자살예방센터에서 올해 3월부터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취직 때문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반인 저는 취직 시에 봉사활동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봉사활동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여러 곳 중 자살이라는 말의 부담스가 풀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수원시자살예방센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킴이들과 자살예방센터의 선생님들을 처음 만나는 날...!! '어떤 분들이실까? 어떤 아이들이 올까?' 하는 기대감과 떨리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하여 선생님들의 배려를 받으며 무사히 첫 봉사활동을 마친 저는 이상하리만치 큰 보람됨과 앞으로의 봉사활동이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다는 부푼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지킴이 활동을 보조하는 것이 저의 역할인데, 아이들이 워낙 똑똑하고 잘해서 별 어려움 없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이 격주로 진행되다보니 아이들의 이름과 얼굴이 매치가 안돼서 이름을 자주 잊



어버리는 상황이 연출되었고, 지킴이들을 만났을 때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치를 봐야하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도 있곤 했습니다.

쉬는 토요일마다 봉사활동을 나오는 것이 아이들에게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알기 쉬운 교육과 체험 학습을 통하여 자살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없애고 올바른 가치관을 성립하게 해 준다는 것이 수원시자살예방센터 봉사활동이 아이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대학교 4학년인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이 가끔은 벅할 때도 있었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이들과 점점 친해지고 선생님들기도 친해지면서 어느 순간 없는 시간에 짬을 내서 하는 봉사활동이 아닌 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격주 토요일에 짧은 2시간이지만 가끔은 그 시간마저 지키지 못한 저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2시간에 책임감을 느끼는 변화된 제 모습을 보면서 '아..이제야 진짜 자원봉사자가 됐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취업 때문에 얼떨결에 시작한 봉사활동이었지만 이제는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는 한 몇 년이고 계속 하고 싶은 봉사활동이 되었습니다. 큰일은 아닐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함께하는 봉사활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나누는 유랑단 '아름다운사람 지킴이랑'

글_오경호(csp교육담당/1101kh@naver.com)

10월 24일 토요일! 추위가 고개들여 따뜻한 목소리 하나쯤 마련해야 할 딱 그대어, 18명의 아름다운사람지킴이가 따뜻한 행복을 나누기 위해 월동 준비를 시작했다.

오늘밤 매일 밤 자꾸만 네 생각나 나는 그대의 Diva~♬'

음악소리를 따라간 곳에선 근심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는 한솔이, 세영이, 혜영이가 있다. 반면 생글생글 리듬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는 수민이와 진양이! 10기의 어여쁜 다섯명의 아이들이 모여 에프터 스쿨에 버금가는 댄스그룹 '에프터 스터디'를 결성했다. 아직은 민망스러운 몸짓이지만 노력한 만큼 자꾸만 보고 싶은 신나고 경쾌한 댄스가 될 것이다.

오카리나 소리가 들려오는 방에선 (선생님들 사이에서) 평소 말없기로 소문난 지훈이와 진우가 앉아 있다. 그들의 그룹명은 J style~! 지훈의 지, 진우의 지를 따서 만들어진 이름이다. 1시간동안이나 쉬지 않고 들리던 연주가 갑자기 멈추더니, 진우가 나지막이 한마디를 꺼낸다. '아 어지러워 ~' 그리곤 다시 연주에 열중한다. 오카리나 소리가 그 어떤 악기보다 영광하고 고운 소리를 내는 건 J style의 열정 때문이 아닐까 싶다.

상현: '난 이제 삼년밖에 못살고 죽을 거요'

예림: '영감, 그러저 말고 기운을 차리시구려!'

상현이와 예림이의 연기가 한창이다. 지킴이의 야심작 연극 '삼년고개'! 그 고개에서 넘어지면 삼년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삼년고개'라고 이름이 붙여졌다. 현대, 할아버지가 고개에서 넘어진 것!! 할아버지는 정말 삼 년 밖에 못사는 걸까? 배경, 소품, 배우 등 지킴이 최대인원이 투입된 만큼 걸작이 탄생할 것이다.

12월 12일 드디어 공연단 '이지랑' 이 첫 유랑을 떠난다.

이 공연은 거동이 불편하여 평소 여가를 즐기지 못하고, 무료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어르신들께 직접 찾아가 공연을 함으로써 삶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킴이 10기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순수하고 맑은 아이들의 마음이 모여 그리고 그 마음을 고스란히 받아줄 따뜻한 마음이 모여 크지 않은 무대, 어설픈 공연이지만 모두가 활짝 웃을 수 있는 공연이 되었으면 한다.



당신과 함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를 건너다 2

글_미우(csp홍보담당/letterinbye@naver.com)

수원시자살예방센터에서 2009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 마인드 브릿지(mind bridge)를 실시했다.
다양한 공연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잇고, 살아가는 의미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지난 소식지에 이어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던
마인드 브릿지 이야기와 사진들을 풀어놓는다.





7월 공연(07.15)

'꿈꾸는 우리들'

계명고등학교 강당 가득 전교생이 모였다. 자살예방교육을 시작으로 흥미진진한 마임공연과 실력파 비보이들의 공연을 통해 신체를 활용한 스트레스 해소와 몸을 소중히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8월 공연(08.21)

'당신의 지혜는 우리의 미래'

수원 관내 어르신 100여분은 팔달구 보건소에서 '끝까지 뛰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자살예방교육을 청강하고 이어 관악구 '행복을 나르는 실버극단'의 난타, 꼭두각시, 마술, 우쿨렐레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감되는 삶의 이야기와 공연단의 흥겨움이 어울어진 시간이었다.



9월 공연(09.24)

'상상하세요. 당신의 건강한 미래를'

환우와 보호자들을 위해 성빈센트병원에서 작은 깜짝 이벤트가 열렸다. 조용한 로비에 수원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팀의 경쾌한 음악이 퍼지고, 남녀노소의 시선을 사로잡는 미술 공연이 있었다. 소리를 따라 하나 둘 모여든 분들의 얼굴에선 어느새 미소가 번졌다.



10월 공연(10.23)

'당신의 지혜는 우리의 미래'

대한노인회 수원시장안구지회 강당에서 대한노인회 수원시 4개구지회 어르신들을 위해 연극「염쟁이 유씨」가 상연되었다. 죽음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내용의 연극은 현란한 배우의 연기와 공감을 주는 이야기로 한 시간 반의 공연시간을 가득 채웠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독립영화 관람권을 보장하라

- 영화 '날아라 펭귄' -

글_이영문(csp센터장/humanishope@hanmail.net)



긴 시간동안 어떤 영화가 상영되기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개인시간과 상영시간이 맞추어지지 않아 포기한 적이 많지요. 일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만드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우여곡절 끝에 발표되었습니다. 우연히도 '날아라 펭귄'은 저의 인권위 참여 시간동안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오다가다 임순례 감독을 송강기에서 만났고, 영화를 기다린다고 말했지요. 겨우 시간을 만들어 영화를 보러갔습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오후시간에 딱 한 차례, 그것도 마지막 날 상영이었습니다(물론 예약을 했습니다). 하던 일을 잠시 중단하고, 연구실

문을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영화관 사정으로 환불할 터이니 관람을 취소하면 안되냐는 전화였지요. 상영 1시간 전이었습니다. 순간 그러자고 하려다가 화가 났습니다. 이걸 아니다. 내가 얼마나 기다려 온 영화인데, 어떻게 만든 시간인데,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상영취소를 통보할 수는 없다, 기타 등등. 프로이트의 이론에 맞추자면, 합리화를 동반한 억압된 분노가 특정 영화관의 상업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와이키키 브라더스' 상영에 맞춰 귀국하자마자, 영화를 보러갔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도 영화관은 문을 닫았고, 관객들의 앵콜공연 요청으로 그해 겨울에나 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심리적 외상은 늘 흔적으로 남는 법입니다. 저는 격렬하게 항의했고, 결국 혼자서 가운데 자리에 앉아 '펭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초등학교 학생 한명과 엄마가 들어왔고, 연인으로 보이는 관객 2명과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물론 이들은 예약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제 덕분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인권영화를 보기도 전에 독립영화메니아들이 겪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인권유린을 당한 셈입니다. 이 글을 통해 그분들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다시는 그런 유치한 짓 하지마세요.

장황한 이야기를 먼저 하였지만, '날아라 펭귄'은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러나 매우 익숙하게 벌어지는 인권문제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4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된 이 영화에는 학원가기 싫은 초등학생과 사교육 열풍에 들뜬 엄마가 나오기도 하고, 직장생활에서 소외되는 채식주의자 남자와 여성흡연자가 담담하게 그려집니다. 또한 기러기 아빠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 황혼이혼을 소재로 하는 퇴직

가장과 독립을 주장하는 부인의 얘기도 나옵니다. 제가 겪었고, 앞으로 겪을 얘기들이 다 있었습니다. 특히 유능한 직장사이지만 기러기 아빠가 되어 하루를 살아가는 권과장(손병호 분) 이야기에서 과거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아빠의 빈자리가 익숙한 두 아이와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 낯설어진 부부의 이야기는 가족의 공존보다는 자식의 장래가 더 큰 화두인 우리 사회의 단면을 예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 고기와 술과 담배문제가 얼마나 많은 편견과 횡포를 날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채식주의자인 남자는 술과 고기를 먹어야 되고, 여자는 회사자리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임순례 감독 자신이 채식주의자로 7년째 살아가며 느끼는 고통이 그려져 있습니다(그러나 그녀는 영화를 만드는데 있어 더 어려운 문제가 술 안먹고 담배 안 피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에피소드에는 권위적인 퇴직가장(박인환 분)이 이제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아내(정혜선 분)와의 역전된 부부관계에서 겪는 갈등을 조영합니다. 더 이상 순종적이지 않는 아내에게 섭섭함을 느낄 뿐 자신이 변하지 않으려는 그를 보며, 제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화끈거렸습니다. 펭귄이 갖는 상징은 현실을 잘 걸어가지 못하는 보통사람들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날지 못하는 펭귄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날아라 펭귄' 일지도 모릅니다.

무겁고 우울한 소재인 인권을 임순례 감독은 편안하지만 예리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영화배급 방식 또한 공동체 상영방식을 표방한다고 합니다. 소수의 동아리 모임에서도 영화를 초청해서 상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영화는 고발영화도 아니고, 심각한 다큐멘터리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고 있는 이야기 속에 담겨진 사람의 소중함에 대한 영화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줄 수 있는 성숙한 사회. 이런 것이 희망일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야속하지만, 저 또한 인권을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글을



제 가장 소중한 아내에게 보냅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아자 아자 '날아라 펭귄'.

p.s. 관객의 평점이 9.0인 영화를 평론가들이 6.0으로 깎아 내리는 횡포에 대해 한 마디 합니다. 니들이 돈 내고 영화를 봤니? 아니면 영화를 만들어 봤니? 관객은 영화의 또 다른 참여자입니다.

〈함께 걸음〉에서 옮김



whereabouts 김소희 사진전

영원한 삶이 없는데 영원한 죽음이 있을까?

글_홍달님(csp자원봉사자)

이 전시장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밖과는 다른 차갑고 무겁게 내려앉은 그 무언가가 나를 감싸서 어깨가 묵직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전시장을 관리하시는 분께서 이 전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테니 작가분의 노트를 읽어보고 관람하라고 하였다. 노트를 읽어 내려가는데

‘나 또한 몇 년 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고 자살 대신 선택한 것이 바로 이번 작업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는 고통을 얻을 수 있었고 자살상황 자체가 공포가 아닌 즐거운 게임으로 인식되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어떻게 즐거운 게임이라고 인식 할 수 있지? 나도 모르게 적대감을 갖고 전시를 보기 시작했다.

이 전시는 일층과 이층으로 나뉘어져 있고, 자살을 선택한 인간이 천사로 재탄생된 후 겪는 혼란과 고통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인간이 되길 바라는 과정에 대해 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이층에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햇빛이 온 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공포 체험장에 홀로 서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듯 두려웠다.

사진을 하나하나 감상하는 중에 나에게 제일 와 닿았던 사진이 바로 옆에 있는 사진이다. 이 사진을 보고 있으면 내가 여지껏 살았던 나날이 다 스쳐가는 기분이 든다.



싱크대 위의 간이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나.

어디에 숨고 싶은데 누군가가 나를 불러 봐주기를 원할 때가 있다.

그런 때에는 이상하게 나 홀로 세상에 내버려진 느낌이 드는데, 그런 느낌이 들 때면 나도 모르게 주변에 연락을 취하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은 것 하던 나도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는 너무 시렵고, 쓸쓸하기 그지없다. 하물며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사람이 그 상처가 다 아물기도 전에 이런 것을 느끼게 되면 얼마나 힘들고 사람의 손이 그리울까.

최근에 친한 친구 한명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낮빛이 좋지 않아 힘든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친구는 이내 참던 눈물을 쏟았다.

자신의 동네친구가 혼자 쓸쓸히 가버렸다고 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자신이 더 많이 신경써주고, 바빠도 연락이라도 자주했다면 그 친구가 혼자 쓸쓸히 가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면 자책하고 있었다.

그런 친구에게 나는, '너는 잘못된 게 없어' 라고 하지 못했다.

우리는 조금만 외로움을 느끼면 누군가에게 달려가 어리광을 부리며 어루만짐을 느끼고 싶은데, 생활핑계를 대고 주변에 소홀히 하는 나 자신, 우리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런 모습에 화도 나지만 내 자신이 그런 상황에 있으면 '그래 이럴 수밖에 없지'라며 용인하게 되고 또 그런 내 모습에 너무 부끄러움이 느껴진다.

우리가 소위 누군가를 믿는다는 말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 듯하다. 믿는다는 말은 웬지 모르게 든든하면서도, 믿기에 그 사람에 대해 알려지지 않고 크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것 같다. 반대로 의심을 하면 좋지 않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보지만, 의심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은 거라는 생각이 든다. 알고 싶으니까 자꾸 찢어보고 의심을 하는 것 아닐까.

단순히 의심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자꾸 찢어보고, 어루만지고, 건드리는 관심을 통해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마음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사진이라는 간접경험이었지만 웬지 내가 그 사진의 연출되어 있는 모델 마냥 무섭고 쓸쓸하고 두려웠다.

그렇지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나 소중한 보기였다.



상담사례 (30대 남성)



세상에 미련은 많지만 세상살기가 너무 힘드네요. 돈을 쓰다 보니 어느새 빚이 2000만원 가깝게 됐어요. 정말 감당이 안돼서요. 더군다나 며칠 있으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위의 시선이 무서워서라도 살기가 힘듭니다. 낙인찍히는 거잖아요. 어차피 더 이상 고시원 생활비도 없으니... 아직 결혼을 못해 본 게 한으로 남을 것 같지만 ㅏㅏ
오늘도 전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죽으면 좀 더 고통이 없을까를 생각하며... 카드가 뭔지... 대출이 뭔지...



창가에 내려앉은 가을햇살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아침입니다.
주신 글을 읽으며 마음이 많이 괴롭고 무거운 것이 느껴져 안타까웠습니다.
열심히 살아 보려고 노력하셨을 것 같은데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 이젠 많이 지치셔서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신 것 같습니다.

30대가 되면서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무언가 새로워져야 할 것 같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30대를 살면서 그냥 역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다행스럽기도 하고 답답했던 것도 같습니다.

님의 상황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 다른 무엇들 때문에 아직도 많이 남겨진 수많은 기회와 인생의 또다른 면들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모두 포기하는 것은 너무 아쉽고 아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는 것이 받아들일 수 없고 삶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만큼 충격적인 사건일 수 있지만, 마음을 달리 먹고 재기를 위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으면 미래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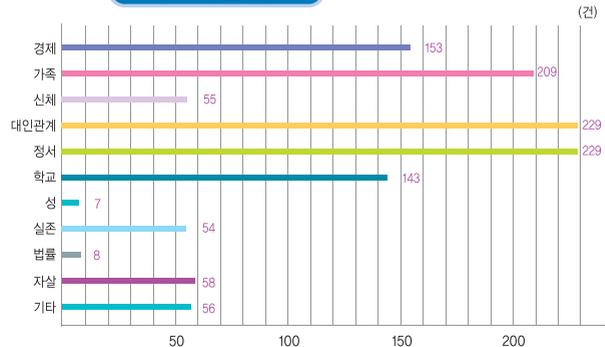
말로 드리는 말씀이라 쉽다고 여기실 수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면서 느낀 것은 인생은 마라톤이고 금방 결정되거나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힘든 순간을 이겨내고 살만한 순간, 행복한 순간을 맛보게 되더라도 어쩌면 우리 긴 인생에서 행복도 불행도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 모습들, 방법들... 무엇이 옳고 그르고 만족할만한고 행복한 것인지의 기준은 누구도 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님, 지금 힘든 순간을 부디 조금 더 용기있게 이겨내시고 언젠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다는 것을 전제로 방법을 생각하는 것, 누구나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시간이 걸리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상담위원 1번 드림.

월별상담유형



주요 상담내용



* 상담 내용은 복수 체크가 가능함.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 목적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가정 또는 시설에 방문하여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발견하고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뢰, 연계함으로써 취약계층 주민의 자가건강관리능력 및 건강수준 향상 도모.

◆ 위탁업체 현황

- 위탁기관 : 수원시방문보건센터(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소재지 : 장안구청 청사1층 (조원동 888)
- 인력현황 : 전체 38명

동명	파장동	울천동	정자1.3동	정자2동	영화동	송죽동	조원1.2동	연무동
간호사	1	1	1	1	1	1	1	1
물리치료사	1							

◆ 세부추진계획

- 사업목표 : 취약가족 3,530 가구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건강보험 하위20%), 산모도우미 신청자, 결혼이민자 가구, 복지시설(노숙자 쉼터등)
- 사업내용
 - 취약가족 방문건강관리
 - 방문진료 : 주 2회(화, 목), 보건소 점종실 예진외사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신청자 방문조사실시
 - 경로당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 관내 경로당 99개소 월1회 방문 (3~6월, 9월~12월)
 - 경로당 어르신 건강경진대회 : Happy Suwon 건강 Festival
 - 전립선 무료검진 : 한국전립선관리협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등록관리

◆ 목적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등록관리 및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구자질 향상과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

◆ 세부추진계획

- 사업대상
 - 관내 출생한 미숙아
 - : 임신 37주미만 출생아 또는 2.5KG미만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 : 선천성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 추진방법
 - 관내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생보고 ⇒ 안내엽서 발송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가정 의료비 지원, 셋째아이 이상 무조건지원 (4인 가족기준 : 523만원)
 - 정기적인 전화상담을 통한 추후관리
- 지원금액 (한도액 체증별 차등지급)
 - 본인부담금 100만원이하 : 전액지원
 - 본인부담금 100만원초과 ~ 500만원이하
 - : 100만원 + 100만원초과금액의 80%
 - 본인부담금 500만원초과
 - : 100만원 + (100만원초과 ~500만원이하)금액의 80% + 500만원초과금액의 90%



아름다운사람지킴이 9기 · 10기



3월부터 7월까지 한 학기 동안 진행된 아름다운사람지킴이 9기 활동의 마지막 관문, 활동발표회가 7월 24일(금) 장안구보건소 열린마당에서 진행되었다. 발표회를 찾아주신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지킴이 9기는 캠프가 진행될 제부도로 이동하여 좌담회 '사람은 무얼 먹고 살까요?'와 지킴이 활동의 마지막 밤을 보내는 소감을 나누었다.

8월 22일 9기의 바통을 이어받은 10기는 자살예방기본교육 후 수원역에서 자살예방 캠페인을 가졌다. 9월 26일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서 자살예방 홍보대사로서 처음으로 활동한 지킴이들이 캠페인의 제목처럼 힘들어 하는 누군가의 곁에서 '함께 걸어가는 친구'가 되어주길 희망해 본다.



라디오 생명사랑 캠페인 '당신이 희망입니다.'

수원시자살예방센터는 9월 10일 세계자살예방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8월1일부터 9월 29일까지 경기방송에서 라디오 생명사랑 캠페인 '당신이 희망입니다.'를 진행했다. 8월 1일~ 8월 30일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22:29(한밤나라), 8월 31일 ~ 9월 29일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07:25(굿모닝코리아)에 방송되었다. 총 4차로 구성된 이번 캠페인은 아름다운사람지킴이 9기 한지희 양,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조진미 교수, 수원시자살예방센터의 센터장인 이영문 교수, 경기방송 보도국장 홍순달 국장의 목소리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렸다.



권선중학교 peer supporters 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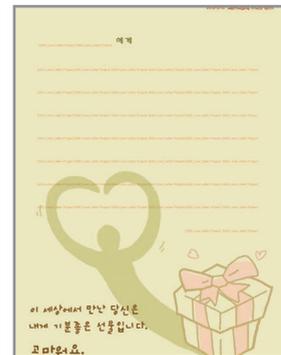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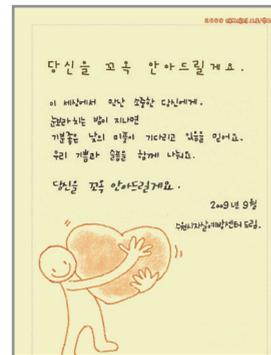


청소년자살예방교육 3단계 (peer supporters)에 참여하고 있는 권선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캠프를 다녀왔다. 11월 13일(금)부터 14일(토)까지 1박 2일간 제부도의 푸른 바다와 함께하며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건강한 미래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불꽃놀이와 바비큐 파티에 이어 홍달님 자원봉사자선생님의 '아이언 아트(iron art)' 시간에는 옆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하며 철사로 얼굴 형상을 만들었다. 완성된 작품을 벽면에 전시하는 등 즐겁고 색다른 경험과 더불어 상대방의 강점을 찾아주는 시간이었다.



수원시민에게 전하는 생명의 메시지 <러브레터 프로젝트>



세계자살예방의 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센터를 홍보하기 위해 "러브레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엽서를 제작하고 행사를 실시하였다. 개소 이후 센터와 함께한 자원봉사자 및 관계자에게 엽서를 발송하는 '러브레터 보내기'와 학교, 보건소, 어린이집의 일반시민이 가족과 지인에게 엽서를 쓰는 '러브레터 쓰기'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시민들의 엽서는 주소가 작성된 포우편 발송되었다.



2009 자살예방 위기상담원 역량강화 워크숍



10월 16일 금요일 수원시자살예방센터의 상담원들의 보수교육이 진행되었다. 본 센터는 매년 2월 상담원을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과 전화 상담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달 사례연구회를 열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상담자원분 사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자살 위기상황의 사정과 개입', '온라인 상담의 기법과 실제', '어려운 전화상담의 사례와 대처' 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다.



2009 하반기 외부 자살예방교육

달	기관명
7월	광주시남구정신보건센터, 영신중학교, 조원고등학교, 계명고등학교
8월	서울구치소, 서대문노인자살예방센터(8월~10월)
9월	가락중학교, 발안중학교, 권선중학교(9월~12월), 시흥청소년문화의집, 여주교도소, 경기지방 경찰청, 법무연수원(9월~10월)
10월	공군8630부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0월~11월),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버드내노인종합복지관
11월	분당노인종합복지관, 안산시정신보건센터, 국립나주병원, 대한노인회 수원시지회(권선, 영통)
12월	조원중학교



세계자살예방의 날 기념, 장안구보건소 생명사랑 대상 수상

9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자살예방협회는 생명사랑과 자살예방을 위해 1년간 헌신한 기관과 개인에 표창을 수여하였다. 이에 수원시자살예방사업을 실행해 오고 있는 장안구 보건소가 생명사랑 대상을 수상하였고, 수원시자살예방센터의 자살예방 연구회 위원인 조성돈,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자문위원회 개최

9월 23일(수) 오후 4시 30분부터 7시까지 해피마음터 2층 밝은방에서 자문위원회가 진행되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2009년도 사업성과 보고 및 시책사업 보고와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발전방향 등이었으며, 관련 자료의 분석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업의 활성화와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시간이었다.

